▶ ㅍ.토는 결국 복잡하다 에서 한글만으로는 발음표기가 어려운 언어예시를 들고있는데 광동어는 대충 사정을 알겠고. 프랑스어는 어떤 이유로 복잡하다고 보는가?

나무위키 '프랑스어/발음' 항목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습난점들을 말하고 있다. 필자 역시 세계 각국의 노래를 IPA발음기호나 음성사전을 참고하여 正音으로 표기해 보면서. 유독 chanson에서는 사전발음기호와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달라 의아했는데. 나중에 아래 글을 읽으면서 원래 그런게 프랑스의 방식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다. 유럽에서 가장 비옥하고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프랑스답게 복잡한 土의 성질을 flex하는 것인지.

외국인들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데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프랑스어의 r은 구개수 마찰음 [ʁ]으로, 영어의 후치경 접근음 [ɹ]이나 대부분의 유럽어에 있는 alveolar trill [r]과는 많이 다르다. 독일어에서 a/o 뒤의 ch 소리가 나며, 혀 끝이 미국영어의 /r/보다는 좀 더 아래이자 밑에 있을 때 결과적으로 혀 뒤쪽이 목젖에 가까이 된 상태에서 내는 소리로, rhotic 계열이지만 혀를 굴리거나 떠는 다른 'R'들과는 달리 성문 마찰음 [h]이나 연구개 마찰음 [x]과 비슷하게 들린다. 한국인들이 많이 배우는 영어, 일본어 등에 전혀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프랑스어 듣기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프랑스어 구어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로망스어권에서 가장 심하게 발음을 뭉개고 빼면서 형성되었고 표준 프랑스어의 발상지인 일 드 프랑스 토박이들에겐 아직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어에서 발음이 뭉개지는건 한국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프랑스어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즉, 듣는 프랑스어는 실질적으로 읽는 프랑스어와 아예 별개의 언어로 보고 별도의 학습 및 적응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정확히 읽으려면 문장 내에서 단어간 연음(liaison)이 어디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지 모두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관사와 인칭대명사, 부인사의 모음축약 때문에 개별 어휘와 별개로 사실상의 결합형인 명사구, 동사구 내지 문장을 일일히 외워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다른 언어들은 그저 암기한 어휘를 나열하면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프랑스어는 차라리 문장을 미리 통째로 외우는 게 머리가 덜 아프다.
제일 골때리는 점인데, 소리내어 읽을 수 있게 되어도 그것을 듣고 원래 문장으로 받아적을 때 철자를 하나도 안 틀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프랑스어에서는 대부분의 어말자음철자와 어말e를 묵음화시키기 때문이다. 똑같이 소리나는 단어라 해도 경우에 따라 t로 끝날 수도 s로 끝날 수도 e로 끝날 수도 es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례별로 다 외우는 게 빠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를 모두 극복한 프랑스어 초보자조차 정말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발음기호 문제이다. 다른 대부분 언어들은 발음기호가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발음기호를 준수하지만 프랑스어는 대놓고 사전의 발음 기호와 실제 발음이 다르다. 해서 발음 기호를 읽는 독음법을 따로 익히는 게 나은 것이다. 그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프랑스어에서 schwa라는 모음이 따로 없으며, ə로 표기하는 모음은 [ㅡ or ㅗ]에 가까운 발음이다.
- 개별단어 및 쉼표/마침표 앞의 유성어말자음은 거기에 모음 [으]를 덧붙여 읽는다. femme[fam 퐘므] 어말의 반모음[j]도 [~ ㅣ]가 아니라 [~ ㅣ^으]로 읽는다. marseille[maʁsɛj맗세예] monsieur[məsjø믜슈]
- 어중 모음 앞의 [j]발음은 [ij]로 읽는다. le soleil[sɔlɛj 쏠레잏]
- 어말 비강세 eu 발음은 [ㅚ] ø가 아니라 [ㅗ] ø 소리가 된다.
- 비모음은 [ŋ] 추가처럼 들리면서 [앵]→[앙], [욍]→[앙], [앙]→[엉][41] 식으로 표기와 발음을 달리한다.
- ʁ은 유성 구개수 마찰음ʁ만 내는 게 아니라 무성 구개수 마찰음χ으로도 읽힌다. Pierre [pjɛːχ 삐예흐]
- [k], [g]의 발음이 [kj], [gj]로 읽히는 때가 있다.

이런 것들은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순수하게 학습자의 청력에 의존하여 짐작해내야 하며 따라서 프랑스어 초보자는 이를 숙지해두면 눈과 귀 사이의 심대한 갈등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41) 현재 프랑스어의 발음기호는 근대시절 프랑스어의 발음에 가깝고 현대 프랑스어의 비모음은 모음추이로 인해 앵[æ̃]([ɛ̃]), 욍[œ̃]→앙[ɑ̃]→엉[ɔ̃]→옹[õ] 처럼 변하였기 때문에 IPA표기와 실제발음이 다르다. 그런데도 바꾸지 않는 이유는 후에 언급할 연음현상(liaison) 때문이다.

- 지역 악센트에 따라 일부 모음쌍은 미분화 되거나 상호교환이 가능하다.
  /ɛ/와 /ɛː/ (mettre/maître): 같은 발음 (homophones)
  /ɛ̃/와 /œ̃/ (brin/brun): 파리 지역에선 같은 발음이지만, 프랑스 남부에선 구분한다. 브행 vs 브헝
  /a/와 /ɑ/ (patte/pâte):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 빠트 vs 빠트
  /ɔ/와 /o/ (cotte/côte): 남부 프랑스에서 같은 발음. 꺼트 vs 꼬트
  /œ/와 /ø/ (jeune/jeûne): 남부 프랑스에서 같은 발음. 쉰 vs 쇤
  /ø/와 /ə/ (deux/de): 일반적으로 같은 발음. 실제 발음은 둘 다 한국어 '_ㅢ or _ㅣ'처럼 들린다.
  /e/와 /ɛ/ (thé/taie): 프랑스 동부를 제외한 지역에서 같은 발음.

결국 단어마다 프랑스어사전으로 찾은 발음기호를 믿을게 아니라 문장의 특정스펠링에 따라 발음을 찾는게 차라리 확률이 높다는 주장에 따라 IPA/正音표기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 비모음인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종성ㅇ 대신 'ㆁ'를 사용해 구분표기할 수 있고, 불어사전에 [ə]로 표기된 발음은 正音↔IPA변환표에서는 남북대립 '자오충' [ᇹ/ᄒᆞ]이지만, 일 드 프랑스 지역에서 발음을 뭉개고 으깬다는 표현대로 동서대립 '묘유충' [_ㅣ/_ㅢ]로 표기하였다.

철자	a	e	f	g	j	o	r	u	v	z
IPA	[a,ɑ]	[ə]* [ɛ,e]	[f]	[g] ʒ+eiy	[ʒ]	[o, ɔ]	[ʀ, ʁ]	[ɥi]	[v]	[z]
正音	ㅏ ~ ㆍㅏ	ㅢ ㅣ ㅐ ㅔ	ㅍ	ㄱ ㅿ	ᄉᆞ	ㅗ ㆍㅓ 42)	ᄒᆞᄅᆞ 흐 ᄒᆞᄒᆞ	ㅟ	ㅸ	ㅿ
철자	ch	gn	qu		ai/aî aie	eu/eû	eu œu	eu/eû œu	ou/oû où aoû	i+모음 /y
IPA	[ʃ]	[ɲ]	[k]	&	[ɛ]	[y]	[œ]	[ø]	[u]	[j]
正音	ᄉᆞ	ㄴᄒᆞ	ㄲ		ㅐ	ㅜㅣ	ㅚ	ㅛㅣ	ㅜ	y
철자	an/am en/em aon/aen	in/en/im ain/aim ein/eim yn/ym	on om	un um eun	oin oën		-ui, uï	ç	er/ez	-il/-ill
IPA	[ã]	[ɛ̃]	[ɔ̃]	[œ̃]	[wɛ̃]	&	[ɥi]	[s]	[e]	[ij]
正音	ᄂᆞᆼ	ᄉᆞᆼ/ᄲᆞᆼ 북부/남부	ᄂᆞᆼ	ᄋᆞᆼ	ᄭᆞᆼ		ㅟ	ㅆ	헤	ᄅᆞᆼ

正音표기의 시야에서 보면 프랑스어의 발음표기시 ㅏ/ㆍㅏ의 구별, ㅐ/ㅔ의 구별, ㅚ/ㅛ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없거나 프랑스어인의 귀에는 서로 비슷한 발음이라는 것.
(중국/미국과 같이 프랑스도 땅덩이가 크다보니 화자의 출신지역에 따른 발음차이도 있다.)

---

42) 모음나침반에서 IPA ɔ는 [ㆍㅓ]에 해당하나, 같은 ɔ라도 언어마다 모음사각도 상의 위치가 다르고, 프랑스어에 [ㅓ]로 표기되는 모음이 존재하지 않아 french ɔ는 [ㅓ/ㆍㅓ]로 표기해 보았다.

여러가지 일관되지 않은 표기들이 나오며 같은 곡을 듣고 내가 작성한 正音표기와 다른 한국인이 작성한 正音표기가 정확히 일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보인다.

- q/ t/ p가 ㄲ/ ㄸ/ ㅃ인지, 아니면 ㅋ/ ㅌ/ ㅍ인지를 한가지로 통일하기 쉽지 않다.
- 프랑스어 사전에서 [ə]로 표기한 것은 화자에 따라 '_ㅣ' 같기도 '_ㅡ' 같기도
- é를 ㅔ, è를 ㅐ로 표기해 보았지만 실제 귀로 들리는 느낌은 큰 차이가 없다.
- [o, ɔ]의 구분도 'ㅗ' 표기하거나 ㆎ ㅓ로 표기하는 것도 문장마다/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 현대 프랑스어의 r발음은 ㅎ-ㄹ[ʁ]가 메인이고, 그외에는 옛 프랑스식 ㆆ[ʀ]과 앞뒤에 붙는 단어에 따라 무성화 된 발음 흐[χ] ㅎㅎ[x]까지 나타난다. [ʀ]발음은 Edith piaf (1915년생)의 non! regrette rien [ʀə.gʀɛt ʀjɛ̃]이나 uvular-trill이 강조된 Mireille mathieu (1946년생)의 목소리로 ㆆ이 (종성)ㄹ-ㅎ(초성)로 분철되어 dresser [들헤쎄] autour [오뚤흐]로 표기된다.
- Paroles, paroles, paroles [빻럴-헤팧럴-헤팧러레] 식으로 분철/연철을 섞어쓸 수 있다. [ʁ]은 (종성)ㅎ-ㄹ(초성)의 연결로 표기하고 [l]은 (종성)ㄹ-ㅎ(초성)의 연결로 표기한 것이다.
- 철자 –il이 [ㅎ]라는 것을 외워서 faciles 퐈씲/ 퐈씨힐 fragiles 플하싫/ 프뢔시힐
- parfum의 'um'이 [œ̃]인 것을 기억하면 [빻르퓡]으로 표기할 수 있다. (종성ㅎ는 유성음) 비모음 [ɑ̃] [œ̃] [ɛ̃]은 한글 종성ㅇ[ŋ]와 다른 발음이지만, 프랑스어에 [ŋ]가 따로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책에서 불어-비모음 종성ㆁ 대신 깔끔하게 종성ㅇ로 표기한 경우도 있다.
- 프랑스어는 광대한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로서 땅넓이만큼이나 발음도 다양하다. Dalida는 이탈리아인 부모에게 태어나 이집트에서 자랐으며, 표준 프랑스어보다 강한 엑센트를 쓴다고 평가된다. Mireille mathieu는 프랑스 남부 아비뇽출신으로 남부프랑스어 (Midi French)를 사용하여 'r' 발음에 trill이 강하고 →[ʀ], t/q가 ㅌ로 표기되는 부분이 많다.

  Camille (1978년생)은 과거 샹송가수들의 발음과는 다른 현대적인 절충형이다. 이처럼 샹숑의 발음그룹이 균질하지 않고, French-r의 3가지 버전[ʁ ʀ χ]이 발음을 달리하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최소의미대립쌍도 아니다보니 사전에서 찾은 IPA기호와 正音표기를 1:1로 매칭하기보다는, ㄲㄸㅃ/ㅋㅌㅍ ㅐè/éㅔ ㅗ[o, ɔ]ㆎ ㅇ[ɛ̃]/[œ̃]ㅇ (북부)ㅇ[ɛ̃] ㅇ(남부) 처럼 구분이 그닥 중요하지 않은 〈관용의 범위〉를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다. 나머지 모음은 正音의 12개 기본모음과 A-1그룹 ㅚ[ø] ㅖ[œ] ㅟ[y] ㆎ[ɔ]으로 표기하였다. [ɥi]에 대해서 'ㅠ'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모음 12지지 결합과정에서 나왔듯이 해(害)를 포함하며 ɥ를 ㅠ라고 여기는 오해를 2차적으로 파생시킬 수 있다.
- 1981년의 Mireille mathieu와 2007년의 Camille를 비교해보면 유화 vs 수채화처럼 샹송의 느낌이 좀더 상쾌하고 투명하게 변한 것 같다. 이것은 가수개인의 보컬이나 시대별 음반제작 성향과 연관된 것이지 불어의 시대적 변화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Hélène (1966년생)은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Le Mans 태생으로 표준발음인 Île-de-France에 가까운 편이다. 1993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ʀ/ʁ 발음에 ㄹ-ㅎ / ㅎ-ㄹ 연결(정임합)을 사용하고, french-schwa에는 正音 _ㅣ/_ㅡ로 사용하여 발음이 으깨졌슴(묘유충)을 보인 저자의 표기방식에 가장 어울리는 발음을 가지고 있었다.

rentre tard [ʁɑ̃tʁ-taːʀ] ㅎ렁트헤따ㆆ →틀히따흐 trouveront [tʁu.və.ʁɔ̃] 트흐븨횽

fait battre [fɛ(t)-batʀ] 퐽바트ㄹ →퐽바틀흐 trouverais [tʁu.və.ʁɛ] 틓루-흐븨헤

이상을 정리하면 불어사전의 발음기호를 가이드로 삼아 正音에 1:1로 매칭시키려 하면 혼란에 빠지기 쉽고, 애초 분류를 새로이 하여 正音표기하면 오히려 단순해진다. 불어는 프랑스인들이 쓰는 발음의 종류-음소(Phoneme, 音素)가 다양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무위키 지적[43]처럼 발음을 뭉개고 빼는 과정[44]을 거치는 과정에서 영어에 비해 음소의 종류는 오히려 적어졌다. 허구연의 발음을 듣기 어려운게 그가 일반한국인보다 다채로운 음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다만 사전에 같은 기호로 표기되어 있어도 정작 실제발음은 문장마다 단어마다 다른데 사전의 발음기호에 의거하여 일관되게 짜맞추려하는 불어 학습초보의 프랑스스럽지않은 성향(정리정돈)이 학습을 방해한다. 土는 土답게 지나치게 세분하지 말고 적당히 으깨서 뭉뚱그려놓는 것이 그 본성에 맞다.

불어사전 기호		正音표기	IPA
ʁ ʀ	French-rhotic	ㅎ-ㄹ ㄹ-ㅎ ㅎ ㅎㅎ	ㄺ[ʀ] ㅎ[χ] ㅎㅎ[x]
[ã] [ɛ̃] [ɔ̃] [œ̃]	French-비모음	ㅇ ㅏㅇ ㅜㅇ	ㅇ[ã] ㅏ[ɛ̃][œ̃]ㅇ ㅜ[ɔ̃]
ɛ e ə	French è é schwa	ㅐ ㅔ ㅢ/ㅣ	
	q t p	ㄲ-ㅋ/ㄸ-ㅌ/ㅃ-ㅍ	

- 예를 들어 프랑스어 rhotic을 사전에서 ʀ ʁ 2가지로 표기했다고 해서 정말 2가지 발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혼동에 빠지며. ʀ ʁ 구분에 의미를 두지 말고, french-rhotic 전체를 단어와 문장속에서 실현된 발음에 따라 [ㅎ-ㄹ ㄹ-ㅎ ㅎ ㅎㅎ] 4가지 중 적절히 표기하면 된다.

  종성에서는 sur [싈/싈] court [콣/콣] douceur [dusœːʀ 두쇭/두쇭] 처럼 ㅎㄹ/ㄹㅎ 겹자음으로 표기되거나, chagrin [샤글항/샤귱랑] car rien [깔히양/깧리양]처럼 분철시 순서를 섞을 수 있다. (다만 종성ㅎ은 항상 유성이다.) d'autre [도트쯔→도틀회] 처럼 모양을 바꾸는 것은 초성ㄺ이 자형을 복잡하게 만드니 「종성ㄹ-초성ㅎ」로 나눠 표기하고, 마지막 e가 회화에서 묵음이지만 운율있는 가사 등에서 e caduc이 발현되어 [œ̃], [ə]로 소리난 것이다.

- 비모음 [ã] [ɛ̃] [ɔ̃] [œ̃]는 모음위에 ~(물결표)를 넣어 특별해 보이지만 正音표기에서는 그저 비음기호ㅇ를 넣은 ㅇ/ㅏㅇ/ㅜㅇ 일 뿐이다. 일반적인 언어의 발음은 성대에서 시작된 진동이 구강내 혀의 모양에 따라 변형되어 입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오지만. 비음은 비강(nasal cavity)을 통해 콧구멍으로 나와, 입/코 2가지 통로로 동시에 음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 결국 콧소리와 구강소리 2가지가 섞인 파형을 귀로 인지하게 된다.
  아기가 어머니에게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자신의 의지대로 놀릴수 있는 혀근육과 호흡조절이라는 수의근(voluntary muscle)을 통한 것일뿐, 비강의 용적은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즉 비강소리의 울림정도는 개별화자의 해부학적 차이에 의해 달라진다.

---

43) 프랑스어 듣기가 어려운 진짜 이유는 프랑스어 구어 자체가 오랜 세월 동안 로망스어권에서 가장 심하게 발음을 뭉개고 빼면서 형성되었고 표준 프랑스어의 발상지인 일 드 프랑스(Île-de-France) 토박이들에겐 아직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나무위키/프랑스어-발음]

44) 예를 들어 프랑스어에 자주 등장하는 je de le te me를 正音으로 표기하면 '싀 듸 릐 트 므'로 그냥 땅바닥(—)에 j d l t m를 던져놓은 것이 된다. 애당초 정자세로 허리를 세우고 남을 위해 똑바로 발음하려는 의지가 없이 자신에게 가장 편한 널부러진 자세로 대충 으깨고 뭉개서 던지는 발음들이다. 라따뚜이OST에서 tout ce que je peux라는 문장을 正音으로 표기해보면 [뚜 씌 끼 싀 푀]가 되어 땅바닥(—)에 t c q j p를 으깨 널어놓은 야구해설가 못지 않은 행태의 발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불어사전에서 ɛ e 2가지로 구분하는 모음발음은 正音의 ㅐ/ㅔ가 떠오르고 è/é 같은 분음부호와 맞추고 싶겠지만, 실제발음을 들어보면 그런 분류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낫다.
- '느좋셰프'처럼 한글에서 '종성ㅎ'는 불파음 [t̚]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 paris [빻리] 같은 표기는 한글에 익숙한 눈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프랑스어를 훈민정음으로 표기했을 경우 종성ㅎ는 무성이 아니라 유성이다. 라고 저자가 전제하더라도, 왜 한글에서 굳건히 정립된 체계를 흔드느냐는 반발이 있을수 있다. 그런데 잘보면 기존 한글 역시 '종성ㅎ'의 발음방식은 단일하지 않고 마치 박쥐같이 몇가지 타입으로 발음이 된다. 붉은색 예시에서 '종성ㅎ'가 유성음들(ㄴ/ㄹ/모음)과 연접하면 유성음化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ㅎ+ㄱㄷㅈ	ㄱㄷㅂㅈ+ㅎ	ㅎ+ㅅ	ㅎ+ㄴ	ㅎ+vowel
낳고[나코] 놓고[노코] 낳다[나타] 놓다[노타] 잃다[일타] 싫다[실타] 낳지[나치] 놓지[노치]	국화[구콰] 맏형[마텽] 입히다[이피다] 잊히다[이치다]	닿소[다쏘] 많소[만쏘]	놓는[논는] 낳나[난나] 많네[만네] 끊네[끈네] 끓는[끌른] 끊네[끌레] 뚫네[뚤레] 뚫는[뚤른]	낳아[나아] 넣어[너어] 좋아[조아]

- '종성ㅎ'이 이웃자음과 만나 일으키는 변화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 ㄱㄷㅈ를 만나면 ㅋ,ㅌ(무성 유기패쇄음)과 ㅊ(무성 유기파찰음)를 만들지만, ㄴ/모음(유성음)을 만난 종성ㅎ은 녹아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단어마다 달라지는 한글의 음운변화를 외우기 어려워 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획(모자)에 포커스를 두어 설명한다면, ㅎ은 자기처럼 모자를 쓰고 있는 ㄱㄷㅈ를 만나면 더 깊게 모자를 눌러주고(ㅋㅌㅍㅊ), 모자를 쓰지 않은[45]ㄴㄹㅇ를 만나면 자신도 모자를 벗고 사라진다고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모자(가획)가 머리에 붙어 있는 ㄱㄷㅈ와 달리 모자와 머리사이가 살짝 떠있어 공기가 통하는 것은 오직 ㅎ/ㆆ이다. 아이들은 대학에 가서 음성학을 배울때 모자와 머리가 붙었던 ㄷㅌ(d,t)는 조음시 공기가 멈추는 파열음(plosive)이고, 머리위로 공기가 통하던 마찰음(ㅅ)이 모자를 붙여쓴 ㅈ,ㅊ는 파찰음(파열+마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ㄱㄷㅂ는 모자를 벗으면 ㅇㄴㅁ라는 원래 얼굴이 나오지만 ㅎ/ㆆ이 모자를 벗은 결과는 다르다. 투명인간이 모자를 썼던 것이어서 벗는 순간 ㅇ가 되어 사라져 버린다. ㅎ+ㅅ→ㅆ가 될 때는 ㅅ에게 ㆆ를 벗어 넘겨 주고 자신은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사라진 ㆆ의 종성표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낳고[낳코] 놓고[놓코]로 표시하여 나코/노코에 비해 음절사이 성문폐쇄ʔ가 표기되면서, 모자는 건네주었지만 자신의 머리띠는 남아 투명인간이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ㅎㄹ[ʁ] ㆅ[ʀ] 흐[χ] ㅎㅎ[x]

- 국화/맏형/입히다/잊히다 에서 花/兄의 '초성ㅎ'는 무성 유기음(aspirated)이나 발음되면서 유기음 ㅋㅌㅍㅊ를 만든다. 프랑스ʁ 발음의 원형이 ㅎㄹ이라 간주했을때 ʁ이 인접 무성음에 의해 devoicing 되어 흐[χ], ㅎㅎ[x]로 realization 되는 것을 정밀전사 표기해도 여전히 ㅎ는 포함되면서 무성음 [χ/x]은 초성ㅎ로 표기된다. 한편 유성음 [ʁ/ʀ]은 sur[쓀] paris[빻리]처럼 '종성ㅎ'로 표기할 수 있다. 같은 기호인데 초성/종성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느냐라고 묻는 이에게는 이미 한글의 ㅅ/ㅇ도 그리하고 있다고 답하겠다.

---

45) ㄹㅁㅿ도 모자를 쓰고 있는 거 같다는 아이의 질문에 답할수 있는 것은 해례본이 전래된 덕분이다.